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 가금 농가에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 요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중국, 대만,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2가 2014. 12월 미국 서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2015. 4. 5 미네소타를 거쳐 2015. 4. 23 가금산업의 본고장인 아이오와에서 추가 발생(총 12개주 50개 지역 발생)됨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014. 12. 18)에 따라 미국산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2014. 12. 20) 하였고, 금번 미국 내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해당국가 여행객 휴대품 검색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 철새도래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국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주변에 대한 소독 조치와 농장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물망 점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베트남 가축질병진단센터
실무자 초청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실무자 워크숍(Workshop on National Centre for Veterinary Diseases for Researchers, Viet Nam)”을 개최했다.

※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기관으로 질병진단 및 방역기술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사기관 (National Centre for Veterinary Diseases; NCVD)

이번 워크숍은 2014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5개 동물질병(브루셀라, 광견병, 뉴캐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일본뇌염)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진단기술을 베트남 담당자에 집중 교육하여 귀국 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에게 주요 동물질병 진단기술을 연수하는 외에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내 동물질병 진단시약업체 방문을 통해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 이론·실습 병행연수를 받은 베트남 질병전문가들은 “베트남 2020 축산업 개발전략” 사업의 전문인력이 되어 한국의 기술력으로 2016년 하노이에 완공될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터(NCVD)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중추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동물질병 방역능력 제고, 양국의 동물 질병현황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로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사업의 선례가 됨은 물론 국가 위상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 공여국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 수원국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NARD)
- 대상지 : 베트남 하노이
- 사업규모 : 2,800백만원
- 기간 : 2014~2017(4년간)
- 주요 사업 내용 :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NCVD)의 신축, 전문가파견,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교육훈련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한-CIS국가 동물용의약품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4월 20일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 발전을 위한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015년 한-CIS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연구동(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

자흐스탄 3개국의 동물약품 정부 관계관 6명(각국 2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산업 전반을 이해시키고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업무와 미션,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및 품질관리와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 등을 소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약품평가과 실험실 및 세균질병과·조류질병과의 OIE 표준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을 견학하였다.

CIS 3개국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은 동물약품 국가검정절차 및 수거검사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및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브루셀라 10종 감별진단키트에 대한 정보 요청, 뉴캐슬 OIE 표준 실험실과 기술협력 등 검역본부의 선진화된 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IS 국가로의 동물용의약품 수출업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협조 등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워크숍이 향후 CIS 3개국 시장조사단 및 시장개척단과 연결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 현장 실증으로 실용화 앞당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자 올해 19개 지역에서 7과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한다.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의 현실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증 시험을 통해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 실증 시험은 4월 대상 농가를 확정해 11월까지 실시하며, 올해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우암소의 수정적기 판정 키트'와 '어미돼지 개방형 군사사육장치' 등 번식 관련 기술, '버섯 재배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 사료'와 '젓먹이 새끼돼지 자동급이기' 등 사양 관리 기술, '체험농장형 소시지 제조 장치' 등 6차산업 관련 기술이다. 특히, 고령화, 규모화 흐름에 있는 축산 농가의 상황을 반영해 '소의 원격 번식·비육 사양관리'와 '어미돼지 군사 사육 장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증한다. 앞으로 자동화 기술을 통해 농장을 운영하려는 농가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경숙 기술지원과장은 "개발한 기술을 빠른 시기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FTA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축산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150여 건의 축산 기술(영농 활용)을 선정, 발표하고 누리집과 책자로 알리고 있다. 올해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된 축산기술 2,800여 건을 800여 건으로 다시 편집해 책자와 압축판(CD)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산지 축산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산지 축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제 수행 기관 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 26일 토론회(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3.0에 맞춰 참여 기관들의 산지 축산 활성화 관련 연구 과제와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지 축산은 축산과 산림 생태계의 자연 순환을 통해 환경 부담은 줄이고 동물 복지 수준은 높이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축산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며, 이중 초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66만 1,000ha 이상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지 축산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양계 생산 모델과 간벌목재를 활용한 목질계풀사료 사료 가치 평가 등 공동 과제를 추진하며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과 정책적·제도적으로 개선할 점, 추가할 과제를 찾는 데도 협의했다.

산림 자원 활용을 활성화하면 축산 분야에서는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가축의 분뇨 등을 이용하면 나무를 잘 키워 결과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재 새로운 산지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대학, 민간 연구소, 농가 등과 함께 11과제, 30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오차드그라스 8품종과 톨페스큐 4품종 등 초지조성용 목초 새 품종을 12품종 개발했으며, 오차드그라스 그린원과 온누리 품종, 톨페스큐 그린마스터2호 품종의 종자를 생산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준 초지사료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빠른 시기에 해결함으로써 산지 축산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몸에 맞게,
건강을 디자인 하세요!
평생영양관리 앱
'칼로리코디' 새 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관리하는 '2015 칼로리코디' 서비스를 4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 칼로리코디'는 영양정보 제공 식품수를 기존 583품목에서 3,973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웹사이트(<http://foodnara.go.kr/kisna>)와 실시간 연계를 통하여 업데이트된 내용을 즉시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5 칼로리코디'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기존 '칼로리코디'의 기능인 식품 영양성분 검색, 목표 칼로리 대비 섭취 칼로리 비교, 만보계 기능 등을 사용하기 쉽게 구성하여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식약처는 앞으로 '칼로리코디'를 통해 프랜차이즈 제품의 영양정보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 3.0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로리코디' 모바일앱은 iOS(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 T스토어)에서 '칼로리코디'를 검색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모바일 웹은 주소창에 'm.foodnara.go.kr/kisna'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제4대 김진만 신임원장
취임식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김진만)은 4월 23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만 신임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진만 원장은 지난 2004년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한국유산균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 센터장, 축산물수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식품안전의 날 국무총리 표창(식품안전 분야)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축산물위생관리 분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등을 수상한 축



산물 위생관리 분야 전문가이다.

김진만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축산물안전 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식탁에 안심 축산물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이러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직원들에게 ‘모든 인증원 가족들이 현장위주 전문가가 되어줄 것’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심사 등 모든 업무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 ‘함께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나갈 것’ 등 3가지를 당부했으며, “즐겁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의 「KAMIS 농수산물 가격정보 앱(App)」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5」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을 받았다.

KAMIS 농수산물 가격정보 앱(App)은 전국의 17개 지역, 57개 시장의 주요 농축수산물의 일일도·소매가격정보에서 거래동향 및 분석정보에 이르기까지 농축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다양하고 특화된 정보 서비스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 제철 농수산물 동향, 설·추석 성수품 가격 및 김치지수 등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유용한 정보를 다수 제공함으로써 알뜰 구매 및 합리적인 소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aT는 고객의 편리한 정보 이용을 위해 ‘14년 10월부터 디자인·UI 및 검색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14년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44%의 이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KAMIS 농산물 가격정보 서비스를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정보 수요자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시장출하 및 매매에 관한 의사 결정을 돕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수급조절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aT 김재수 사장은 “KAMIS의 공공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업기관·지자체·언론사·민간기업 등에 지속적인 Open API 제공으로 정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농협a마켓,
온라인 팔도장터 전문관 개설
충청남도관 오픈,
연내 전국으로 확대

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김현근)은 농식품전문 쇼핑몰 「농협a마켓」에 팔도장터를 개설하여 로컬푸드의 온라인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협a마켓은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나, 이번 ‘신도불이 내 고향 장터’를 개설로 상시적인 로컬푸드 온라인 직거래 매장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4월 22일 충청남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몰’을 오픈하였으며 올해 순차적으로 전국 9개도 전문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농협a마켓(www.nhamarket.com)에 방문하여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충청남도와의 제휴추진은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 경제대표이사와 안희정 도지사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약을 한 이후 1년 여에 걸쳐 추진한 성과물이다. 천안호두과자, 병천아우내 순대, 굿뜨래멜론 등 충남지역의 대표상품을 비롯하여 100여 개 상품이 입점하며 향후 입점기념 캠페인과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하나로유통 김현근 대표이사는 “온라인 팔도장터의 상시 개설로 우수한 지역 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판매로도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와의 상생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새로운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4월 17일 오전 경기 군포 축평원 대회의실에서 창립 제26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축평원 5대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기관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축평원 직원들은 ‘주요 5대 사업에 대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비전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축평원은 지난해 새로운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발표하고, 뒤이어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 주요 5대 사업 : 개체등급판정, 품질공정평가, 축산물이력제, 유통정보제공, 조사연구

허영 원장은 “기관의 5대 사업의 조화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 모두의 혼이 담겨져야 하고,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는 혁신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목표를 향한 전사적 참여를 강조했다.